

이 력 서

	성 명	(한글) 남하빈
		(한자) 南河彬
		(영문) Nam habeen
	생년월일	2002.11.04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8 길 28 장충아트빌라 17 차 301 호
휴대폰: 01071024350		
E-Mail: s2018s27@e-mirim.hs.kr		

학 력	구분	졸 업 년 월		출 신 교 및 전 공	구 분	소 재
	고등학교	2020.01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	실업	서울
					졸예· 졸업	
					졸예· 졸업	
수 상 경 력	명칭		기관(단체명)	수상년월	수 상 내 용	
	과학의 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18.05.	우수상 2 위	
	백일장 (운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18.09.	차상 2 위	
	협성독서왕		협성문화재단	19.10.	입선	
해 외 경 험	국가		기간	사유		
	태국		4 주(2019.01.)	국제화교류사업 씨앗단		
	일본		4 주(2020.02.)	2020 일본 글로벌 인턴쉽		

1. 성장 과정 및 성격

[빛을 내어 주위를 밝혀주는 사람이 되자]

'전등' 바로 이 단어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LED, 백열등과 같이 전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센서 등과 닮은 사람입니다. 어둑어둑한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 빛을 밝혀주고, 환한 낮에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필요할 때 스위치를 통해 빛을 밝힐 수 있는 존재이기에 자신을 '센서 등'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유년시절부터 연극과 음악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뮤지컬을 전공했습니다. 하나의 뮤지컬 당 약 8개월의 준비과정을 가지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활동적이고 친화력 좋은 성격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긍정적으로 임하는 성격으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서 진행했던 블록코딩 수업과, 구글 코리아 본사에서 들은 개발자분의 강의를 통해 미림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두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공인 뮤지컬을 통해 무대 위 조명을 받을 때도, 현재 전공인 소프트웨어 공부를 할 때도 위 마음가짐으로 센서 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정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 나아가지만, 누군가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경험은 좋고 나쁨이 아닌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생활하겠습니다.

2. 학교생활 및 생활신조

[열정, 이해와 공감, 생각의 전환]

꾸준히 이루어지는 작은 성공들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해 나간다는 신념을 지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학교생활을 3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는 '金石爲開 (금석위개)'라는 사자성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해당 사자성어가 말하는 바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전력을 다한다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9 글로벌 인턴십에서 예상보다 짧은 개발시간이 주어졌지만, 팀원들과 협동하고, 평소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통해 발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정보화 교육 봉사 도우미로 활동하며 컴퓨터를 아예 처음 다뤄 보시는 분들께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처음 하던 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도록 꼼꼼히 설명해드렸는데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까, 답변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하던 중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컴퓨터를 처음 다룬다 생각하고 다시 답변해드리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이제야 이해가 잘 된다고 고맙다는 말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후 먼저 타인의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문장은 '새로운 도전과 발상'입니다. 주어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프린트기는 새로운 발상을 하기 전에는 그저 결제하면 목록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종이 출력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결제 명세가 아닌 홍보지 출력, 추천권, 행사용 로또 등을 집어넣어 용도를 색다르게 바꿔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도전으로 더 즐겁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지원동기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전공]

본교에 입학한 이후, 단순한 일상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을 프로그램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영업이 끝난 후 쓰시던 가계부와 더불어 종종 이용하는 쇼핑몰 애플리케이션 및 웹, SNS 등을 보거나 사용하여 문득 머릿속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와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

가고는 했습니다.

학기 중 간단한 자판기 프로그램을 JAVA 나 C 언어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턴십에서 진행한 일본 기후현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서비스 중 업체를 위한 웹페이지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웹 개발자와 고객과 업체를 연결하는 유통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따릉이'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며 평소 고객으로서 접해보던 프로그램을 직접 유통 업체의 측면에서 개발해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어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귀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핫트'라는 종합 판매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확실히 인증된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이 타 판매 플랫폼과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며 고객과 인플루언서에게 더 좋은 상품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업무 과정에서 얻는 보람이 다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때문에 소셜빈에 입사해, 업무 과정 속 보람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귀사의 성장을 몸소 느끼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귀사의 인재상처럼 '나중에 노는 물이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입사 후 포부

[集小成大(집소성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만든다는 사자성어인 '집소성대'가 있듯이, 다음 4가지를 꼭 실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근본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근본을 튼튼하게 하라는 노자의 말과 같이, 현재까지 배워온 전공 지식과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공 지식을 충분히 공부해 추후 현업에 필요한 언어와 기술들을 익혀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지시된 업무를 배우는 자세로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의 logo에 담긴 역동성과 배려심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받으며, 유통/커머스 분야의 IT 기술을 이끌어 나아가는 귀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잊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닌 긍정적인 성격과 열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상 이 포부를 마음속에 지니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되, 실력은 향상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또 다른 빛을 났으므로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통해 배워 온 이론들을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끝없이 나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귀사에서 실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